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 소재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실태조사

201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성 혜

서울 소재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실태조사

김 미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이 성 혜

인 준 서

이성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 방과후 음악특기 적성 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10개교의 지도교사 20명과 수강생 231명을 대상으로 교사는 인터뷰를 학생은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첫째, 음악 특기적성을 신청한 학년이 1학년에서부터 6학년으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많은 비율의 응답이 이루어져 있다. 각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개별적 수업이 아니라 한반에 10~20명의 학생들이 다같이 함께하는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음악 특기적성 교육이 사교육보다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와 비판이 있었지만 설문을 조사한 결과 수업의 흥미도에서 “매우 흥미 있다”가 48%로 제일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졸업후 중·고등학교때 음악을 배울것인가”에서 배운다고 응답한 비율이 4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고 있는 수업을 선택한 이유”에서 관심이 있어 배워보고 싶다가 6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음악 특기 적성 수업을 받고 나서 “음악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45%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음악 특기적성 수업이 사교육비 경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수강료가 낮게 책정하게 되므로 지도강사들에 대한 낮은 보수로 질적으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수업인원은 몇 명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명이상~15명미만”이 34%로 가장 높은 결과로 과목당 지도교사의 원활한 수업이 되지않아 수업인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개개인의 질적인 레슨이 아니라 그룹레슨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학생들의 실력향상도 늘어나지 않

고 만족도도 떨어지게 된다.

넷째, 음악 특기적성 수업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초등학교가 대부분이어서 학생들의 특기 신장 교육 및 소질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다섯째, 초등학교별 음악 특기적성 수업을 조사한 결과 29개의 학교중 국악수업이 있는 학교는 가야금 4개교, 소금 1개교, 단소3개교, 사물놀이 3개교이고, 바이올린은 28개교, 플룻 25개교 등으로 악기에 비하면 국악 악기 수업은 많지 않았다. 교과서에서 국악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음악 교육은 국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가 서울시 방과후 학교 음악 특기적성 수업에 도움이 되어서 인재양성과 음악교육이 발전하기를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I .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4
4. 연구의 제한점	4
II . 이론적 배경	5
1.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활동의 필요성 및 목적	5
2. 음악 특기적성 교육	8
3. 외국의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교육	15
III . 연구방법	22
1. 연구 대상	22
2. 연구 절차	22
3. 연구 도구	23
1) 설문지	24
2) 교사 인터뷰	25
3) 분석 도구	26
IV . 결과 및 해석	27

1.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음악프로그램 실태조사	27
2. 교사용 설문조사	28
3. 교사 인터뷰	30
4. 교사 인터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35
5. 학생용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37
V. 결론 및 제언	55
1. 결론 및 제언	55

참고문헌

ABSTRACT

부록(설문지)

표 목 차

<표 1> 학생용 설문지 문항구성	24
<표 2> 인터뷰 질문표	26
<표 3> 양천구에 속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음악프로그램 현황	27
<표 4> ‘교사 기초자료에 대한 질문’의 분석표	28
<표 5> 성별	37
<표 6> 학년	37
<표 7> 방과후 음악수업 받은 기간	38
<표 8> 음악 특기적성 수업의 흥미도	39
<표 9> 중·고등학교때 음악을 배울것인가의 수업 유무	40
<표 10> 배우고 있는 수업을 선택한 이유	41
<표 11> 악기 연습량	42
<표 12> 연주회 또는 발표회	43
<표 13> 수업인원 여부	44
<표 14> 적당한 수업인원	45
<표 15> 수업횟수	46
<표 16> 수업형태	47
<표 17>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수업방식	48
<표 18>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수업희망 관련	49

<표 19>	수업에 대한 관심도	50
<표 20>	악기에 대한 자신감	51
<표 21>	다음 학기 방과후 음악수업 참여여부	52
<표 22>	음악수업을 위해 하고싶은 말	53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혼 보다는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방과후에 적절한 보호자가 없이 학생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증가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2006년 전면 확대 시행된 이후 최근에는 99.9%의 학교에서 운영될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렇게 활성화 된 이유는 정부가 방과후 학교 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핵가족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였기 때문이다.

방과후 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 활동이다. 기존에 방과후 교실(초등), 특기·적성 교육, 수준별 보충학습(고교)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방과후 학교’라는 용어로 통합 추진한 것(교육인적자원부, 2006)으로 최근에는 각 학교에서 크게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 활동을 충족시켜 특기, 소질, 취미, 적성 및 창의력을 계발하고 학습에 대한 심화 및 보완지도를 위한 수요자 중심, 수익자 부담 원칙의 특기 적성교육 활동을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며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특기 적성 교육활

등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지침을 내렸다.¹⁾

<School-Age Care>를 쓴 Musson(1994)은 자아 개념의 확장, 자아 존중감 향상, 학문적 기술과 지식 및 태도 학습, 긍정적인 사회의 가치관 습득, 사회적 기술 획득, 안전 기술 학습, 도전 능력 향상, 개성 확립, 놀이를 통한 자기 표현 학습, 호기심과 기쁨 만끽, 기관에 대한 책임감과 주인의식 전수 등을 제시하였다.²⁾ 즉, 방과후 아동지도는 아동이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더 많은 도구를 사용하여 각자의 신체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듯 방과후 지도를 통해 초등학교 시절부터 음악교육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인간의 심미적인 경험을 일깨우고 발달 시켜야 한다. 음악교육이라는 것이 실기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새로운 성취감을 느끼고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어 학생들의 소질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 개발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 10세 이후에 이르면 지적 활동이 활발해 지고 정서의 안정도는 높아짐에 따라 지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음악의 구성요소를 인식하며 전체적 분위기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5~6학년이 되면 어린이들이 집단 소속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급격히 높아지므로 집단 활동이 권장되며 이것이 어린이들의 심리적, 음악적 충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³⁾ 어린이들의 발달 단계와 음악적 특징에 유의하여 음악활동과 교수 학습을 수행할 때,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음악적으로 혜택을 얻고 음악이 주는 많은 장점들을 삶에 용해시켜 바람직한 전인적인 삶을 누리는 기반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1) 서울시교육청. “특기 적성교육 활동운영 안내” (2001)

2) 한국여성개발원. “방과 후 아동지도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 개발원, 1997) p.10
개인용

3) 조효임 외. “초등 기악 교육론” (서울, 예일출판사 2005) p.64~66

초등학교에서의 음악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서적 지능을 높여주며 개성과 창의성을 자극하여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및 창의성 등 무한한 잠재성을 개발하고, 인성교육의 정상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사교육비의 절감과 동시에 음악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실태분석을 통하여 조사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음악 특기적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초등학교 음악특기 적성교육 활동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이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음악프로그램의 외국의 사례들을 알아본다.

둘째, 서울 소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와 효과, 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학생들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음악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적 환경 개선, 지도강사의 연수, 운영 방법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넷째, 결론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음악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언하였다.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교육 활동의 이론적 검토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음악 분야 ‘방과후학교’의 실태 및 외국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앞으로 갖추어지고 보완 되어야 할 방과 후 학교 음악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서울시 양천구에서 현재 음악 특기 적성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10개의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음악 특기적성 교사 및 수업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사 20명과 음악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2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술 응답 및 인터뷰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은 설문의 내용에 따라 각각 제시된 문항에 대한 백분율(%)로 통계처리 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둔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음악 특기 적성 교육활동의 현황, 문제점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연구 대상을 서울시 양천지역에서 음악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일부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결과를 음악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에 있어 제한 받을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

방과후 교육활동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아동지도가 일차적으로는 보호의 목적을 갖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는 아동의 발달과제, 예컨대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⁴⁾

방과후 교육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계발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서 교육의 다양화에 부응하는 한편 교실수업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다. 즉,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성장가능성을 최대한 계발해주어서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을 목표로 하고 사회적으로는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⁵⁾

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전수와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성장 가능성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행해져 왔다. 지금 현대 시대에는 빠른 정보화 시대로 급속히 변화 하였기에 이에 따라 능력과 기능을 아주 중요시 하게 되었다.⁶⁾

음악의 시작은 ‘인간의 창의성’에 기인하고 있다. 음악적 창의성은 음악 작품으로, 음악 연주로 나타나고 어떤 음악이든 인간 창의성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음악을 만나게 되는 순간은 곧 인간 창의성의

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 학림기획 1998) p.15
제인용

5) 문교부. “특기.적성교육 교사용지도서” (1996) p.3

6) 김종서 외. “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1984) p.34

결정체를 만나는 순간이다. 노래를 부르고, 기악합주를 하며, 좋은 음악을 감상하는 활동은 곧 학생들의 창의적 잠재력을 ‘음악을 통해’ 일깨우는 시간이 된다. 따라서 현대와 같이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는 시대일수록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음악을 충분히 가르쳐야 할 것이다.⁷⁾

음악을 통해 육성되는 예술, 문화적 감각과 창의성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일은 학생 개인의 확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21세기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화적 경쟁력의 제고라는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⁸⁾.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음악교육은 초등학교 음악교과와 연계된 음악활동으로 구성하여 부모의 음악학습에 대한 필요를 채우고 다양한 음악활동 방법, 즉 음악감상, 연주, 노래부르기, 독보, 음악과 창작적 표현을 각 활동마다 제공하여 아동의 흥미를 만족시키는 활동 중심적인 음악활동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⁹⁾

특기라는 단어는 그 사람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이나 기술, 장기를 말한다. 이러한 특기는 음악, 미술, 체육, 목공예, 금속공예 등의 예·체능 분야에서 인정되고 발견되어 왔다. 학생의 개성 신장, 건전한 취미와 특수 기능, 민주적 생활 태도 등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활동으로 특기적성 교육이 특별활동의 한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활동은 학급활동, 학교활동, 클럽활동으로 나누어지고 학급활동은 학급어린이활동, 적응활동으로 구분되고 학생의 자율적인 생활 태도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자주적인 실천 활동을 중시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¹⁰⁾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활동을 모두 끝낸 이후이며

7) 석문주 외.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2011) p.14

8) 교육인적 자원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V)” (교육과학 기술부, 2008) p.139

9) 장혜원. “방과후 음악 활동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방과후 아동지도연구, 2007)Vol.4, No.2

10) 특기.적성교육활동의 개선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0) p.20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만족시켜 학생의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는 창의성과 정서적 기능과 교육의 기능을 함께하는 특기적성 교육이 지원과 관심으로 활성화 된다면 청소년 문제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양육적인 지역사회 보육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교육을 통하여 협동성, 자주성, 봉사정신 등을 키우고자 하고 있지만 이는 책을 읽거나 훈화를 들어 형성되기 보다는 집단 속에서 남과 더불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실현하면서 반성, 평가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체득된다.

특기적성 교육은 다양한 학교 내외의 강사자원을 활용하여 정규 교육과정에서 할 수 없는 창의적인, 때로는 실험적인,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숨겨진 소질을 폭넓게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표현력 신장 및 자신에 대한 내재적 동기화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듯 특기 적성교육은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한 최적의 장이 될 수 있다.¹¹⁾

특기적성 교육은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이 가능하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학생의 수요에 따라 개설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활동을 추진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또한 교사를 포함한 질 높은 강사들이 참여함에 따라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고, 학부모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오늘날 교육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개인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교육에 대한 반성이 촉구되어 모든 학생에 대한 획일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11) 서울특별시 교육청. “초등 방과 후 운영계획” (2007. 3)

12) 서울특별시 교육청. “2007 초등 방과 후 강사연수” (2007) p.11

개인차에 따르는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서 특기적성 교육은 학생 자신이 갖고 있는 소질, 경향 등 모든 발달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신장시켜야 하는 것이 목적이다.¹³⁾

2. 음악 특기적성 교육

1) 음악 특기적성 교육의 의의

학교의 음악 교육은 학생들 개개인의 바람직한 음악적 성장을 그 근본 목표로 하며 음악적 성장은 학생 개개인의 음악 체험의 양상과 질에 따라 결정된다. 음악을 어떻게 체험하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이 결정된다면 다양한 특기적성 음악교육을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과 심성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¹⁴⁾

음악 교과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시간만으로는 음악 특기 육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특기적성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음악 특기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기적성 음악교육을 통해 지식위주의 학습이 아닌 심미적 체험이 주가 되는 음악 활동을, 강압적 분위기나 경직된 속에서 음악 교육이 아닌 예술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와 보다 나은 환경 여건에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표현을 표출할 수 있다.¹⁵⁾

음악 예술은 인간의 삶에 이로운 것이고,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며, 삶의 경험을 강렬하게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공유하여야 할 만큼 중요

13) 함종규. “특별활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교육과학사, 1984) p.10

14) 최시원. “음악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다라, 1996) p.28

15) 이성삼. “음악교수법” (서울 : 세광출판사, 1983) p.11

한 것이다. 음악은 도덕적인 인간, 사회적인 인간, 건강한 인간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져 왔다. 그러나 그러한 음악 외적인 결과는 음악의 체험을 통해 개인의 심미적 결과 그 가능성이 향상되고 확대될 때에만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¹⁶⁾

학교의 교육이 인간이 저마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적 가능성을 최대한 확대 개발함으로써 전인으로서의 자기완성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면 예술 교육을 통하여 학생이 진실된 자기인식을 가지게 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어떤 가능성의 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한 학교 교육의 임무인 것이다.

예술교육은 신체적 발달이나 지적발달, 도덕적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그 자체의 가치와 의미, 그것만이 지니는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절실하고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¹⁷⁾

인간에게는 본래 선천적으로 음악을 필요로 하고 또한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므로 음악 분야는 현재 오늘과 같은 발전을 할 수 있었고, 음악 교육은 음악의 필요성과 음악적인 본성에 적당한 자극을 주면서 인간을 육성시키려는데 있다.¹⁸⁾

교사는 학생들에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고, 음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음악의 개인적 사회적 가치와 예술적 효용 가치에 관하여 생각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¹⁹⁾

음악을 통해 즐길 줄 알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 진다면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남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음악은 특별한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인생을 풍요롭게 평안한

16) 이흥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출판사, 1990) p.112-113

17) 이흥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출판사, 1990) p.25

18) 이성삼. “음악교수법” (서울 : 세광출판사, 1983) p.11

19) 이흥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 세광출판사, 1992) p.39

마음을 주는 모든 이의 안식처이고 현대문명의 사회에서 마음과 정신적인 휴식을 담당하여 주는 시간적 공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

2) 초등학교 음악 특기적성 교육의 필요성

(1)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특성

초등 음악교육은 음악을 교육의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중등과 차이가 없으나 학생들의 발달 상황과 음악의 내용, 교육방법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기초적인 음악 개념의 이해, 다양한 음악활동의 경험, 음악에 대한 흥미와 즐겨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초등 음악교육의 주된 방향임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발달 심리가 교육 과정을 결정하고 학습 자료와 지도 방법을 개발 하는데 있어서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육자들에게 잘 알려진 상식에 속한다. 음악성은 어떤 경우 지능과 같이 타고난 음악적 가능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후천적으로 개발된 기능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²⁰⁾

음악 수업은 학생들의 수준에 비해서 너무 느리거나 급진적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기초단계(1~3학년)에서는 더욱 이 점이 중요하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화음에 대한 표상이 비교적 늦게 발달하는데, 음악을 듣고 연주함에 있어서 리듬과 가락의 차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감각 놀이와 규칙성 있는 놀이의 연관된 측면에서 놀이 중심의 학습 방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3~6학년의 경우 대부분의 음악

20)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2009) p.109

적 개념을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또 음이 없어도 음의 높이를 알 수 있는 절대음감은 3~4살때부터 발달되기 시작하며, 오히려 그 연령이 높아 질수록 이 능력의 개발은 엄청나게 쇠퇴하게 된다. 고학년에서는 더 발전된 수준으로 음악을 체험하고 음악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며, 음악적 심성을 계발하게 할 만한 체계적이고도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²¹⁾

음악교육학자인 에드윈 고든(Edwin Gordon)은 인간의 음악성은 9세까지는 유동적이지만, 그 이후는 부동적이어서 음악의 조기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음악교육은 적절한 시기에 체험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의 음악적인 성장, 인간적인 성장을 돕는다. 음악의 향수는 음악에 나타나는 미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몰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엘리베이터나 버스에서 틀어 주는 음악을 수동적으로 ‘듣는’ 행위와는 다르게, 음악의 향수는 음악의 느낌에 대한 감정의 동화, 음악의 구조적 요소에 대한 인지적 주의, 그리고 신체의 전 기능을 음악에 집중하는 신체적 반응을 종합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음악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전인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²²⁾

초등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은 수업을 통한 다양한 음악체험의 결과나 연주를 통해 학생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주며 심미적 경험을 제공하여 준다. 심미적 경험은 실질적, 실용적 목적을 갖지 않으며 심미적 경험이 제공하는 통찰력, 만족, 즐거움에 가치를 둔다.²³⁾

이렇듯 음악 예술은 인간의 삶과 분리되지 않았으며,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미적 경험과 즐거움을 주어 왔으며, 개인의 잠재된 음악성과 창의적인 사고를 계발시켜 왔고, 공동체의 정체성

21) 이흥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2) p.172

22) 교육인적 자원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V)” (교육과학 기술부 2008) p.137

23) H. 에이블리스. 방금주 역.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삼호출판사 1990) p.62

과 통합을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함으로써 인간의 사회적 삶에 대한 깊이가 있는 것이다.

(2)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목표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목적은 전문적인 음악가를 길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음악교육은 수업방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에 의해 특별히 선택되는 개개의 수업기법(instruction skill, instruction technique)을 다양하게 동원하여, 수업을 통한 다양한 음악체험의 결과나 연주를 통해 학생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며 심미적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각자 인생에 관련된 느낌을 재경험하고 예술을 통하여 인간은 주관적인 진실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면서 심미적 경험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한다.²⁴⁾

유덕희는 “음악은 예술이기 때문에 미적 체험의 교육인 것이다. 미적 체험이란 곧 전인적인 체험의 뜻을 지닌다” 고 하면서 음악을 통한 미적 체험은 인간성을 풍요하게 해주며, 인간을 아름답게 성장시키는데 필연적인 체험이라고 하였다.²⁵⁾

음악 교육은 인지적 기술과 이해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어 특히 언어 분야의 전이가 용이하다. 또한 초등학교 음악 프로그램의 다양한 음악 활동은 학생에게 좀 더 활기찬 학교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취미로서의 가치도 높다. 이렇듯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심미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한다. 그래서 학생의 음악적 잠재력

24) H. 에이블리스. 방금주 역. “상계서” (서울, 삼호출판사 1990) p.61-63

25) 유덕희. “음악 교육학 개론” (서울, 학문사 1975) p.9

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²⁶⁾

(3) 초등학교 음악 교육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의 음악교육은 어머니의 태내에서부터 시작이 되며, 가정의 환경을 통하여 강화되어지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음악교육은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어린이들의 음감과 음지각력이 급진적으로 발달되기 때문이며, 한 인간의 음악적인 바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슈타이너(Rudolf Steiner)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생명체’로서의 발달기간(태어나면서부터 7세까지)의 말기, 또는 ‘감정체’로서의 발달기간(7세부터 14세까지)의 초기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것은 어린이가 5감의 반응을 통하여 온 몸으로 주위 세계를 모방함으로써, 이제까지 쌓여있던 막을 벗고 건강한 생명체로 나서는 시점이자 지력과 기억력이 태동하는 시기인 동시에 아직은 보호막 속에 싸여있는 감정체가 서서히 분화 작용을 시작하는 시기인 것이다.²⁷⁾

말츠맨(Edward Maltzman)은 4~11살의 어린이와 24세 이상의 어른을 대상으로 소리와 건반을 연결하는 실험을 한 결과 어린이들의 경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습효과는 어른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을 보고하고 있다. 페졸드(Petzold)는 6살에서 12살 먹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청각각에 관한 인식의 최대의 발전은 초등학교 1,2학년생에게서 가장높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학년이 올라 갈수록 청지각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게됨을 보고하고 있다.

26)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V)” (서울, 교육부) p.53

27) 이흥수. “전개서” p.133 재인용

그리어(Greer), 도로우(Dorow), 한서(Hanser)는 어떤 특정한 음악에 관한 반응은 교육을 통해 쉽게 교정 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유치원 아이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실험 초기에는 록음악을 더 선호하였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고전음악을 더 좋아하는 경향으로 의식이 전환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은 초기음악 교육이 얼마나 어린이들의 음악의 취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음악교육이 어린이들에게 유의미한 교육이 되기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적절하고 어린이들의 심적, 지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에 맞추어 음악교육이 필요하다.²⁸⁾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의 개념을 이해하게 하는 일은 음악 학습의 기본적인 목표이다. 음악의 개념은 음악을 이루는 데에 기본이 되는 공통 요소의 개념과 음악 행위의 보편적인 원리, 그리고 음악적인 의미들을 뜻한다.

이홍수는 그의 저서에서 음악수업에서 학생 개개인이 새로운 형태의 음악적 개념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첫째, 그 수업에서 어떤 음악적 개념을 가르칠 것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둘째, 선정한 개념과 원리가 뚜렷하게 반영된 악곡들을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하게 체험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앞서 학습한 음 현상과 표현 원리를 자신들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데에 창의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학생들이 체험한 내용을 정의적인 언어로 진술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²⁹⁾

28) 임미경 외.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예중, 2002) p.71~72 재인용

29)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출판사, 1990) p.152

3. 외국의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교육

외국의 특기적성 교육 활동이 우리나라와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 부모들의 취업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의 어린이들의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하며 외국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호주 등의 특기적성 음악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미국의 MENC(Music Educators Conference, 음악교육자 협의회)에서는 균형적이고,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여 2000년을 대비하는 음악교육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MENC에서는 'Performance'를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곡을 만들고, 에세이와 시를 쓰고, 리포트를 완성하고, 발표를 하는 등 학생들의 음악적 지식과 기술의 성취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³⁰⁾

미국의 방과후 음악프로그램은 초등학교마다 사용자 부담비를 연방 정부와 지역발전 기금, 학교기부금, 각각의 재단에서 음악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음악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보조금을 신청하고 악기, 악보, 용품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한다.

음악 프로그램으로는 바이올린, 첼로, 플룻, 알토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기타, 피아노, 리코더 등 다양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뉴욕주의 한 초등학교 홈페이지에는 악기대여와, 악기관리하는 방

30)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 교육과학사 2009) p.177

법, 악기 다루는 방법등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도 어려움없이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연습일지와 부모님에게 학생들이 악기연습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습일지를 쓰도록 권유하는 내용도 나와있다. 이러한 연습일지를 통해 어느정도 실력이 되면 학생들은 학년별로 1~3학년은 쉬운악기와 노래, 4~6학년은 바이올린, 비올라 및 첼로, 5~6학년은 플룻, 클라리넷, 알토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을 연주하고 작은발표회와 큰발표회를 나누어서 오케스트라 형식으로 학교에서 많은 공연을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경험과 협동심, 악기연주를 통한 성취감과 음악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긍정적이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³¹⁾

미국은 체계적인 음악프로그램과 보조금 지원을 통해 초등학교때부터 예술적 교육을 체험하고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이 새로운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많이 열어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있다.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은 창작과 즉흥연주를 포함하여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정보와 연주기술을 갖고 있지만, 음악을 작곡하고 즉흥 연주하는 능력은 몇몇의 소수의 학생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을 갖추지 않고 있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음악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공학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활용하여 창작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²⁾

미국은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을 맘껏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음악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보를 비롯한 각종 단체의 지원과 함께, 음악은 재능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31) <http://www.childrensmusicworkshop.com>

32) 김용희. “미국 음악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체제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29집) 2005, p.3

2) 독일

독일의 모든 교육정책은 연방교육부와 주 문화부에서 주관하며 공립학교 체제를 가지고 있다. 각 지방 정부의 문화부협의회는 초·중등교육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기본내용인 음악수업의 당위성, 교육목표, 학습내용, 지도방법 등과 교재구성, 그리고 이외의 현장수업에 필요한 지원과 모든 교수교육프로그램이 자기 주에 속한 학교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도록 결정한다.³³⁾

독일의 한 초등학교 방과후 음악수업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기타, 리코더, 색소폰, 플룻, 클라리넷 등 악기에 대한 1대 1 레슨을 제공하고 풍부한 강사진을 가지고 있고, 타악기에 대한 레슨은 음성강의로 제공하고 있다. 학교의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와 연방정부, 기업체의 후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의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누구나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최대의 강점이고, 또한 음악이 발전하기 위해 오케스트라와 재즈밴드, 합창단으로 연주회를 열고 모든 학생들이 무대공연에서 자신이 배운 악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축제 때의 연주나, 양로원 방문등 다양한 음악활동을 하고있다.³⁴⁾

독일의 음악교육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뮤직슐레(음악학교)’이다. 정규학교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시설 학교로써, 모든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주로 음악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교육받고, 연극, 춤, 미술 등도 배울 수 있다. 원하는 학생들은 정규학교 방과후에 뮤직슐레에 입학해서 하고 싶은 음악을 배우게 되는데 악기 대여와 개인 레슨, 연습실 사용 등이 거의 무료로 가깝다. 물론 시설 역시 최고수준이다.³⁵⁾

33)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 교육과학사 2009) p.186

34) <http://www.berlinbritishschool.de/de/akademisches-leben/fachabteilungen/musik>

초등학교에서는 음악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모든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모든 학생들은 모든 음악적 잠재력에 도달하고 도전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식개발과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음악전담 특수 훈련교사, 다양한 악기 교사의 배치로 다양한 음악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삶과 음악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독일인의 생활모습을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3) 일본

일본의 음악과 목표는 학교급별에 따른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학년급별(2개학년)하위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음악과 목표는 ‘표현 및 감상 활동을 통하여, 음악을 애호하는 마음과 음악에 대한 감성을 기르고, 음악활동의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풍부한 정서를 기른다’이다. 일본의 음악과의 목표에 있어서는 음악 활동을 통해서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는 본질을 충실하게 할 것을 목표로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³⁵⁾ 일본의 대부분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학부모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위원회의 관내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은 클럽활동과 부 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클럽활동을 방과 후 부 활동으로 활성화 시키고 있다.

일본의 한 초등학교는 오케스트라 활동, 뮤지컬 활동, 합창활동 등을 중심으로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 4학년 이상은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1~3학년은 노래와 건반, 하모니카, 리코더를 연주하고 합창과 합주는 다

35) 전음교. “독일과 프랑스 음악교육 현장을 가다” (2005) p.9

36)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 교육과학사 2009) p.190

같이 배우고 있다. 4학년 이상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 활동은 방과후에 매일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합주하는 곡은 아이들이 연주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편곡을 하고 연습한 곡을 학교행사로는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학습발표회, 또는 지역행사로 벚꽃축제, 고향축제, 겨울축제 등 다양한 축제에 참여한다.

오케스트라가 활성화 되기위해 초등학교에서는 파트마다 조가 되어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악기 연주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악기별로 짝이 되고 스승과 제자가 되어 선배가 후배지도에 들어간다. 교사로부터 배우는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식의 선배 후배지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이좋게 앉아 파트연습을 시키는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³⁷⁾

일본은 취주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대부분이고 악기로는 목관악기는 플루트, 클라리넷, 버스클라리넷, 색소폰, 테너색소폰, 금관악기는 호른, 트럼펫, 트럼본, 유포니오, 튜바로 구성되어 초등학교의 오케스트라 구성은 대부분 취주악단으로 되어있고, 합창부가 활성화 된 초등학교도 많이 있어서 교내행사에서 교가를 부르거나, 입학식과 졸업식 합창제도 열고 합창대회도 참가할 정도로 음악활동에 적극적이다.

4) 프랑스

프랑스는 각 지역의 교육 프로젝트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교육부는 각 학교에 고용할 교사 보조원 등의 자원 교원 선발 고사를 시행한다. 프랑스의 특기 적성 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학교 방과 후 시간을 잘 활용하여 그의 학업 향상과 인성을 꽃 피우고 사회적 생활을 효율적으로 배우도록 하는데 있고,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에게

37) <http://www.shiki4syo.ed.jp/>

우선권을 주고, 시간과 활동의 조직은 학기 중, 방학 중, 방학 기간이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구성된다.

방과후 시간으로 학교 수업전이나 수업후이고 학교수업이 없는 수요일, 주말, 방학으로 시간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특기 적성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음악 특기적성의 목적은 음악 활동에 의해 감수성과 호기심, 창조성을 개발하고 공동체 생활과 시민 정신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에 학교에서 개인 음악 레슨을 수강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며 키보드 및 기타, 오케스트라 악기등 다양한 악기를 배울 수 있고, 학년별로 1~3학년은 작은 피아노 연주회, 4~6학년은 밴드 콘서트와, 전체적으로 밴드를 구성해 재즈밴드 콘서트를 가지고 학교에서 자주 발표회를 하고 있다.³⁸⁾

퐁세르바뚜와르(Conseruvatoire de Musique Et d')는 특기 적성교육 기관으로 가장 대표적이며 정통적인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문화부 후원 하에 다양한 전공 교육을 갖춘 음악 및 예술 전문교육기관이며, 음악성의 감사를 맡으며, 소르본느 대학에 의해 인증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전국 400여개의 퐁세르바뚜와르는 전문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실기시험(오디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교양취미활동을 원하는 일반 시민은 시험 없이도 자유로운 개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장애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이곳에는 앙상블, 음악이론, 작곡, 조형예술, 연극 등의 다양한 전공 과정이 있다.

38) <http://ursulinesdequebec.lacledelareussite.com/fr/home/>

5) 호주

호주는 학급당 학생수가 많지 않고 중등학교부터는 단위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초, 중등의 모든 학교는 오후 3시반이면 정규수업이 끝나고 오후시간은 특기나 취미 활동에 활용한다. 지역단체나 대학 부설기관,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많은 사설 학원에서 피아노, 각종 악기 연주 등 원하는 것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으며 개인 교습도 성행하고 있다. 호주에서 음악은 취미생활의 일부로 여겨진다. 그래서 수업시간 중에 선택해서 음악을 배우던지 방과 후에 따로 개인 레슨을 받고 있다. 무상교육은 아니지만 가격이 무척 저렴해서 사교육비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1인 1악기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데, 교사는 학생들의 취향을 고려해서 몇 개 악기를 추천해주고, 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악기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학생들은 방과 전 후에 학교 교사가 아닌 외부의 음악교사로부터 그룹지도나 개인지도를 통하여 악기교육을 받을 수 있고 배우게 되는 악기는 대체로 관악기나 현악기 등이다.

퀸즈랜드(Queensland) 주의 브리즈번(Brisbane)에 있는 한 학교에서는 현악과 관악 오케스트라가 수준별로 구성되어 있고,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1주일에 한 번 30분씩 지도를 해 주는데 1년 동안 교육비는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을 넘지 않는다.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1년에 한두 번 정도씩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 행사를 갖는다. 그 중 두드러진 것은 ‘학교 발표의 날’ 행사로 학생 각자가 가장 잘하는 주제를 골라 발표에 참가하고 지역 백화점, 양로원 같은 시설을 돌아다니며 연주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호주의 음악수업에

서는 다양한 전문인을 만날 수 있다. 아카펠라 그룹, 타악기 전문 그룹 등이 학교로 와서 수업시간에 가르치기도 한다. 다양한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각 분야의 전문인이 직접 가르침으로써 음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³⁹⁾

39) EBS 교육방송. 2005 "세계의 예술교육 그 현장을 가다" - 호주편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음악 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시행중인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10개의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20명의 교사와 23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기간은 2012년 10월 8일~10월 31일까지 총 23일이 소요되었다.

2. 연구절차

방과후학교 음악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전화통화로 서울시 양천구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음악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10개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2012년 10월 8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교사용 설문지와 인터뷰를 시행하고 20명의 설문지 모두 당일 회수하였다. 그리고 학생용 설문지의 경우 학생들에게 직접 배포하고 231명의 설문지를 당일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연구 조사과정에서 조사 목적에 맞는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논문의 결론에 도달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 조사 목적에 맞는 필요한 정보, 자료의 종류, 측정방

법, 분석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설문지 도입을 신중히 검토 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로, 설문지는 교사용 설문지와 학생용 설문지로 나누어 실태를 조사하였다.

두 번째로, 인터뷰의 질문은 설문지 질문 중 일부분을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질문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설문지 및 인터뷰의 결과 및 해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도구

1) 설문지

이 연구에 대한 조사도구는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인식도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기초로 이 연구에 부합된 내용을 참고하였고, 설문지의 항목 구성은 이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는데, 이태구(2007), 박은숙 (2008), 권미영 (2007), 류희진(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하였다.

설문 문항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학생용 설문지 문항구성

영역	내용	문항번호 및 질문 내용	문항
학생 기초 조사	기초자료	성별?	2
		몇학년?	
방과후 음악 수업 흥미도	수업 흥미도	방과후 음악수업을 얼마나 받았는가?	5
		음악 특기적성 수업의 흥미는?	
		학교선생님과 강사선생님중 어느쪽을 원하는가?	
		배우고 있는 악기에 대한 생각은?	
		졸업후 중.고등학교때 음악을 배울것인가?	
	운영방법	배우고 있는 수업을 선택한 이유?	3
		악기 연습량은?	
		연주회 또는 발표회가 열리는가?	
방과후 음악 수업 실태조사	수업방법	수업인원은 몇명 인가?	5
		수업인원은 몇 명이 적당한가?	
		일주일에 몇 번 수업을 하는가?	
		몇 번 받았으면 좋겠는가?	
		반이 어떻게 나누어 지고 있는가?	
방과후 음악 수업 방식 조사	만족도	어떤 수업형태가 가장 재미있는가?	7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수업방식을 만족하는가?	
		수업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도 계속 하고 싶은가?	
		수업에 대한 관심도는?	

		악기에 대한 자신감은?	3
		현재 배우는 악기는?	
		악기는 내 것인가?	
		음악실을 사용하는가?	
	앞으로의 계획	다음 학기에도 음악수업에 참여할 것인가?	
		배우고 싶은 악기를 적어주세요	
		음악수업을 위해 학교나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은?	

2) 교사 인터뷰

교사용 설문지의 질문중 보다 심층적인 답변을 위하여 10개의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하였다. 인터뷰의 질문은 양경희 (2007), 권미영(2007), 류희진(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하였다. 인터뷰 질문표는 <표 2>와 같다.

<표 2> 인터뷰 질문표

구분	인터뷰 질문
질문 1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수업 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질문 2	방과후학교 음악 특기적성의 교육환경은 만족하십니까?
질문 3	방과후학교 음악 특기적성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4	방과후 학교 음악 특기적성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인식은 어떠합니

	까?
질문 5	방과후 학교 음악 특기적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3) 분석 도구

분석 도구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Microsoft Office Excel)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음악프로그램 실태조사

<표 3> 양천구에 속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음악프로그램 현황

구분	내용(학교수)	
성악	보컬(1)	
기악	현악기	바이올린(28), 첼로(2)
	관악기	플룻(25), 리코더(9), 하모니카(6), 오카리나(12), 클라리넷(5), 오보에(1)
	타악	드럼(2)
	합주	오케스트라(1)
국악	악기	가야금(4), 소금(1), 단소(3)
	합주	사물놀이(3)
실용음악	악기	포크기타(2), 통기타(9), 우쿨렐레(2)
	합주	음악교실(1), 리듬마스터(1)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1)	
기타	신나는 동요교실(2), 동요합창부(1)	

현재 개설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음악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양천구에

속한 30개의 초등학교 중 29개 학교는 바이올린과 플루트 개설된 학교가 가장 많았고 1개교의 학교는 방과후학교가 시행되지 않았다.

2. 교사용 설문조사

1) ‘교사 기초자료에 대한 질문’의 결과 및 해석

<표 4> ‘교사 기초자료에 대한 질문’의 분석표

구분	문항 내용	문항 보기	인원(명)	비율(%)
교사	성별	여자	16	80
		남자	4	20
	연령	25~30세	6	30
		31~35세	7	35
		36~40세	4	20
		41~45세	1	5
		45세이상	2	10
	최종 학력	대학교졸	13	65
		대학원졸	7	35
	전공	피아노	8	40
		바이올린	3	15
		유아교육	1	5
		관현악	2	10
		작곡	1	5
		첼로	1	5
		실용음악	1	5

		성악	1	5
		초등교육	2	10
	경력	1년이상~3년미만	7	35
		3년이상~5년미만	3	15
		5년이상~10년미만	2	10
		10년이상	8	40
	본교 선생님 외부강사	학교공개채용	18	90
		본교선생님	2	10
	지도하는 과목	리코더 & 오카리나	4	20
		바이올린	3	15
		피아노	3	15
		단소	1	5
		가야금	1	5
		플룻	2	10
		오케스트라	1	5
		오보에	1	5
첼로		1	5	
기타		1	5	
동요합창부		1	5	
우쿨렐레		1	5	

<표 4>는 음악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강사의 일반적인 사항이다. 먼저 성별에 있어 남녀 비율은 여자가 80% 월등히 높았다. 특히 연령대도 31세~35세가 35% 가장 많았으며 전공은 피아노 전공이 40%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에서는 대학졸업자가 65%이고 대학원 졸업자가 35%였다. 또한 강사의 경력은 10년 이상이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것은 초등학교의 음악특기적성 교육활동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의 하나이다.

3. 교사 인터뷰

설문지의 질문 중 중요한 질문만 선정해서 보다 심층적이고 차별화된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대상에 해당되는 방과후학교 음악수업을 직접 하고 있는 20명의 교사들에게 인터뷰 하였다. 그 중에서 일부 교사의 인터뷰 질문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수업 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타났고 적정 학생수와 환경, 시간, 수강료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

학생수에 관한 교사의 답변은 수업의 집중도와 학생관리의 수월성, 그리고 학생에 따른 수준의 수업을 고려했을때 교사들의 생각이 인원수로 인한 개인지도의 어려움을 알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5~10명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가 많고 끝나는 시간이 비슷해 한번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 수준별 수업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또한 교사들이 수강료 책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고, 질문한 답변 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A교사 : 교실이 방과후 전용교실에서 하지만 학생들이 많다보니 장소가 작고 수강료 책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방과후 학교에서 저렴한 수강료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지는 장점은 있지만, 기초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는 적은 레슨시간 때문에 스스로 연주 할 수 있기까지 매우 어렵다.

B교사 : 현재 오보에를 배우는 학생들이 10~2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개인지도나 학생들 지도에 어려움이 많아 반을 나눠서 5~10명으로 줄이면 좋을 것 같다. 교사 1인당 레슨 학생 수가 너무 많아 개인지도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C교사 :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잘 맞춰서 오지 않아 수업시간이 지연되면 학부모들이 공부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인원도 많아 개인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열심히 지도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지 않아 힘들 때가 많다.

음악 특기적성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들은 대부분 학생인원과 시간, 개인별 레슨지도 등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마다 교육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의 교육환경은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에서는 수업장소에 대한 의견들이 대부분이고, 현직교사들의 지원과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 강사료 인상에 대한 의견과 방과후 학교 음악 특기적성 수업 홍보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

수업환경에 대해서는 음악실, 방과후교실등의 특별실이 잘 구비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질 높은 수업을 위해서는 공간 확보와 시설 구비에 좀 더 지원을 해야한다.

수업 홍보에 대해서는 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에 따라서 방과후학교의 수강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의지도 있지만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후학교 수업 프로그램에 대해 반신반의 하는 학부모

모들에게 학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에 대한 방안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D교사 :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잘 맞춰서 올 수 있도록 현직 교사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음악실이 아닌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다보니 악기를 배우는 장소로는 좁아서 좀 더 넓은 곳이 필요하다.

E교사 : 이 지역이 경제적인 수준이 조금 낮은 가정들이 많아 교육청 지원을 받으면서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학부모님들이 방과후학교 수업을 열심히 애도되고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도 학원처럼 수강신청을 했다가 그만 다닐 수도 있는걸 알아서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

F교사 : 수강료를 더 높게 받고 강사료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강료와 내가 느끼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상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따질 수는 없지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음악특기적성 방과후학교 수업에 대한 교육환경이 음악수업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학생과 학부모라는 수요자의 인식 또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아는 교사는 차별성 있는 수업을 해야한다.

3) 방과후 학교 음악 특기적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으로는 수강료에 대한 인상과 강사료에 대한 인상, 동시에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음악수업 프로그램이 다양한 악기 프로그램으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하고, 또한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수업만의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의 실질적인 발전과 활성화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개선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일은 앞으로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수업을 변화해야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이 될 것이다.

G교사 : 개선할 점은 과목 수강료가 적다보니 교사 강사료가 적절하지 않 다는 생각이 들고,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음악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H교사 :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실력이 많이 높아지려면 실력별로 반을 편성하여 경쟁심리도 작용시키고, 비슷한 실력으로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수업 형태가 병행되면 학생들의 실력이 더 높아질거라 생각한다.

I교사 : 학교에서 교내 행사로 어린이날 즈음에 연주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악기로 마음껏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학부모님들을 초청 해서 연주 실력을 자주 보여주면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방과후학교 음악특기 적성 수업의 대한 교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교사들의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더욱 확대될 방과후학교 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방과후학교 음악 특기적성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와 방과후 학교 음악 특기적성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인식은 어떠합니까?에 대한 답변에서는 20명의 교사 모두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고 방과후 학교 음악 특기적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4. 교사 인터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설문지, 교사 인터뷰의 결과 및 해석을 통해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음악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방과후학교 음악 특기적성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방과후학교 전용교실이 있지만 음악수업을 하기에는 작고 또 방과후학교 전용교실이 없는 학교는 교실을 빌려서 수업을 하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학교마다 방과후학교 음악수업 전용교실을 만들어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방과후학교 음악 특기적성 수업은 모든 수업이 끝난후 한번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와서 개인레슨 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한번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각각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기엔 문제가 있었다. 적은 교육비로 인해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더 많은 교사의 확보가 요구된다.

셋째, 방과후학교 음악 특기적성 수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강사 확보의 어려움과 실력도 있어야 하고 강사료가 적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방과후학교 음악프로그램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강사들의 방과후학교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연수교육이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강사료를 더 올려야 한다.

넷째, 방과후학교 음악 특기적성 수업이 사교육비의 경감이 되고 있다는 의견은 모두 같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음악수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부족해서 활성화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이로 인해 수강료가 비싸더라도 개인적인 레슨과 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방과후학교 음악수업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작은음악회를 열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방과후학교 음악 특기적성 수업중 국악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하였고 실태조사를 했을 때도 국악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국악프로그램을 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사 확보와 방과후학교 음악 특기적성에서 국악악기 수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낮은 레슨비 책정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는 시스템의 문제, 강사 확보의 문제 등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

5. 학생용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1) 학생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가. 학생 기초조사 설문문항

(1) 성별 및 학년

<표 5> 성별

설문 문항	내 용	응답수(명)	비율(%)
성별	남자	57	25
	여자	174	75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별 분포는 <표 5>와 같다. 남학생이 25%(57명), 학생이 75%(174명)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표 6> 학년

설문 문항	내용	응답수(명)	비율(%)
학년	1학년	6	3
	2학년	18	8
	3학년	33	14
	4학년	33	14
	5학년	60	26
	6학년	81	35
계		231	

학년별로는 1학년은 3%(6명), 2학년은 8%(18명), 3학년은 14%(33명), 4학년은 14%(33명), 5학년은 26%(60명), 6학년은 35%(81명)으로 제일 높은 비율이 나타났고,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으로 올라갈 수록 학생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 방과후 음악수업을 얼마나 받았는가?

<표 7> 방과후 음악수업 받은 기간

설문 문항	내용	응답수(명)	비율(%)
방과후 음악수업을 얼마나 받았는가?	3개월 미만	19	8
	3개월~6개월	31	13
	6개월~9개월	41	18
	9개월~12개월	56	24
	1년이상	84	36
계		231	

학생들에게 “방과후 음악수업을 얼마나 받았는가?” 의 질문에 대해 수업을 받은 기간은 “1년이상” 이 36%(84명), “3개월미만” 이 8%(19명), “3개월~6개월” 이 13%(31명), “6개월~9개월” 이 18%(41명), “9개월~12개월” 이 24%(56명)로 나타났다. 1년 이상 꾸준히 음악 특기적성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이 가장 많은 점으로 보아 한번 음악 특기적성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은 보통 1년이상 꾸준히 배워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수업 흥미도에 관한 설문문항

(3) 음악 특기적성 수업의 흥미는?

<표 8> 음악 특기적성 수업의 흥미도

설문 문항	내용	응답수(명)	비율(%)
음악 특기적성 수업의 흥미는?	매우 흥미있다	111	48
	조금 흥미있다	66	28
	보통이다	48	21
	별로 흥미없다	6	3
	흥미없다	0	0
계		231	

학생들에게 “음악 특기적성 수업의 흥미도”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한 “매우 흥미있다”가 48%(110명)로 제일 높았고 “조금 흥미있다”가 28%(66명), “보통이다”가 21%(48명), “별로 흥미없다”가 3%(6명)였고 “흥미없다”는 없었다. “매우 흥미있다”가 48%(110명)로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현재 배우고 있는 음악 특기적성 수업에 있어서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졸업후 중·고등학교때 음악을 배울것인가?

<표 9> 중·고등학교때 음악을 배울것인가의 수업 유무

설문 문항	내용	응답수(명)	비율(%)
졸업후 중·고등학교때 음악을 배울것인가?	배울것이다	96	42
	생각해 보겠다	90	39
	배우지 않는다	6	3
	모르겠다	39	17
	기타	0	0
계		231	

학생들에게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고등학교때 음악을 배울것인가”의 질문에 “배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42%(96명)로 가장 높은 결과가 나왔으며 “생각해 보겠다”는 의견이 39%(90명), “배우지 않는다”

는 3%(6명), “모르겠다” 는 17%(39명)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도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수업이 있으면 계속해서 음악 수업을 하는 것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5) 배우고 있는 수업을 선택한 이유는?

<표 10> 배우고 있는 수업을 선택한 이유

설문 문항	내용	응답수(명)	비율(%)
배우고 있는 수업을 선택한 이유는?	관심이 있어서	156	68
	부모님의 권유로	45	19
	친구가 배워서	12	5
	선생님의 권유로	6	3
	기타 (재미있을것 같아서)	12	5
계		231	

학생들에게 “배우고 있는 수업을 선택한 이유” 를 묻는 질문에 “관심이 있어 배워보고 싶어서” 가 68%, 전체의 15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님의 권유로” 는 19%(45명), “친구가 배워서” 는 5%(12명), “기타(재미있을것 같아서)는” 5%(12명), “선생님의 권유로” 는 3%(6명)로 가장 낮은 결과로 나왔다. 전체의 70%정도 되는 다수의 학생이 음악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업을 선택할 때 자발적으로 배우고 싶어 신청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음악 특기적성 수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악기 연습량은?

<표 11> 악기 연습량

설문 문항	내용	응답수(명)	비율(%)
악기 연습량은?	매일	36	16
	가끔	138	60
	거의 하지 않는다	45	19
	관심없다	9	4
	기타(안한다)	3	1
계		231	

학생들이 방과후 음악 수업이 끝난 후의 악기 연습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끔” 연습 한다는 결과가 60%(13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거의 하지 않는다” 는 19%(45명)이고 “매일” 연습한다는 16%(36명), “관심 없다” 는 4%(9명), “기타(안한다)” 는 1%(3명)의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음악 특기 적성 수업을 하면서 배우는 악기에 대해 조금 씩 연습하면서 더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있는 것이다.

(7) 연주회 또는 발표회가 열리는가?

<표 12> 연주회 또는 발표회

설문 문항	내용	응답수(명)	비율(%)
연주회 또는 발표회가 열리는가?	한학기에 1번	126	55
	한학기에 2번이상	12	5
	1년에 1번	48	21
	1년에 2번이상	33	14
	열리지 않는다	12	5
계		231	

학생들에게 “연주회 또는 발표회가 열리는가” 를 묻는 질문에 “한학기에 1번” 은 55%(126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1년에 1번” 은 21%(48명), “1년에 2번이상” 은 14%(33명), “한학기에 2번이상” 은 5%(12명), “열리지 않는다” 는 5%(12명)로 나타났다. “한학기에 1번” 이 55%의 결과로 초등학교에서 음악 특기적성 수업의 연주회 또는 발표회가 적어도 한학기에 한번 개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수업실태에 관한 설문문항

(8) 수업인원은 몇 명인가?

<표 13> 수업인원 여부

설문 문항	내용	응답수(명)	비율(%)
수업인원은 몇 명인가?	5명이내	9	4
	5명이상~10명미만	54	23
	10명이상~15명미만	78	34
	15명이상~20명미만	24	10
	20명이상	66	29
계		231	

학생들이 “수업인원은 몇 명인가?” 에 대해서 “10명이상~15명미만” 이 34%(7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으로 “20명이상” 이 29%(66명), “5명이상~10명미만” 이 23%(54명), “15명이상~20명미만” 이 10%(24명), “5명이내” 는 4%(9명)의 순으로 가장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학생들이 한 반에서 많은 인원이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9) 수업인원은 몇 명이 적당한가?

<표 14> 적당한 수업인원

설문 문항	내용	응답수(명)	비율(%)
수업인원은 몇 명이 적당한가?	5명 이내	27	12
	5명 이상~10명 미만	97	42
	10명 이상~15명 미만	49	21
	15명 이상~20명 미만	32	14
	20명 이상	26	11
계		231	

학생들이 수업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원수는 “5명 이상 ~ 10명 미만” 이 42%(97명)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10명 이상 ~ 15명 미만” 이 21%(49명), “5명 이내” 가 12%(27명), “15명 이상 ~ 20명 미만” 이 14%(32명), “20명 이상” 이 11%(26명) 순으로 나타났다. 63%의 학생들이 “5명 ~ 10명” 또는 적어도 15명 미만 정도의 학생들이 한 반에서 수업 받기를 선호하였다.

(10) 일주일에 몇 번 받았으면 좋겠는가?

<표 15> 수업횟수

설문 문항	내용	응답수(명)	비율(%)
일주일에 몇 번 받았으면 좋겠는가?	1회	72	31
	2회	123	53
	3회	24	10
	4회	12	5
	5회	0	0
계		231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수업을 몇 번 받았으면 좋겠는가?” 에 대해서 “2회” 가 53%(123명)로 가장 높은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1회” 가 31%(72명), “3회” 가 10%(24명), 4회” 가 5%(12명)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현재 대부분 음악 특기적성 수업은 주 1회 수업이 많이 있는데 학생들은 주 1회 수업 보다는 주 2회 수업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 수업 방식에 관한 설문문항

(11) 어떤 수업형태가 가장 재미있는가?

<표 16> 수업형태

설문 문항	내용	응답수(명)	비율(%)
어떤 수업형태가 가장 재미있는가?	개별지도	72	31
	그룹레슨	41	18
	단체연주(합주)	95	41
	작활동	23	10
	기타	0	0
계		231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형태가 가장 재미있는가?” 의 물음에 대해 “단체연주(합주)” 가 41%(95명)로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이어서 “개별지도” 가 31%(72명), “그룹레슨” 18%(41명), “작활동” 10%(23명)로 학생들이 다 같이 수업에 참여하여 연주할 수 있는 ‘단체연주(합주)’ 가 가장 재미있다고 대답하였다.

(12)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수업방식을 만족하는가?

<표 17>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수업방식

설문 문항	내용	응답수(명)	비율(%)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수업방식을 만족하는가?	매우 만족한다	94	41
	조금 만족한다	81	35
	보통이다	41	18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0	4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5	2
계		231	

학생들에게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수업방식을 만족하는가?” 에서는 “매우 만족한다” 가 41%(94명)로 높은 의견이 나왔고, “조금 만족한다” 는 35%(81명), “보통이다” 는 18%(41명),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는 4%(10명),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는 2%(5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수업방식에 만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3) 수업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도 계속 하고 싶은가?

<표 18>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수업희망 관련

설문 문항	내용	응답수(명)	비율(%)
수업을 여름방학 이나 겨울방학 에도 계속 하고 싶은가?	매우 그렇다	70	30
	조금 그렇다	103	45
	그렇지 않다	35	15
	보통이다	23	10
	기타	0	0
계		231	

학생들에게 “수업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도 계속 하고 싶은가?”의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30%(70명), “조금 그렇다”가 45%(103명), “그렇지 않다”가 15%(35명), “보통이다”가 10%(23명)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라고 대답한 75%의 학생들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도 방과 후 음악 특기적성 수업이 있으면 계속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14) 수업에 대한 관심도는?

<표 19> 수업에 대한 관심도

설문 문항	내용	응답수(명)	비율(%)
수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다	111	48
	보통이다	90	39
	그저그렇다	18	8
	모르겠다	12	5
	기타	0	0
계		231	

학생들에게 방과 후 음악 특기적성 수업을 참여한 후의 “수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질문에 “높아졌다”가 48%(111명)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통이다”가 39%(90명)이고 “그저 그렇다”가 8%(18명), “모르겠다”가 5%(12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수업을 통하여 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15) 악기에 대한 자신감은?

<표 20> 악기에 대한 자신감

설문 문항	내용	응답수(명)	비율(%)
악기에 대한 자신감은?	매우높아졌다	96	42
	높아졌다	102	44
	보통이다	27	12
	낮다	6	3
	기타	0	0
계		231	

학생들에게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수업을 통한 자신의 악기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질문에 “높아졌다”가 44%(102명)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높아졌다”가 42%(96명), “보통이다”가 12%(27명), “낮다”가 3%(6명)로 나타났다. “높아졌다”와 “매우 높아졌다”라고 대답한 86%의 학생들이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수업을 통하여 악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16) 다음 학기에도 방과후 음악수업에 참여할 것인가?

<표 21> 다음 학기 방과후 음악수업 참여여부

설문 문항	내용	응답수(명)	비율(%)
다음 학기에도 방과후 음악수업에 참여할 것인가?	꼭 참여할 것이다	70	40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84	36
	참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45	19
	참여 안할 가능성이 높다	6	3
	절대로 참여 안할 것이다	3	1
계		231	

학생들에게 “다음 학기 방과후 음악수업에 참여할 것인가?” 의 질문에 “꼭 참여할 것이다” 가 40%(70명)로 가장 높은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가 36%(84명), “참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가 19%(45명), “참여 안할 가능성이 높다” 가 3%(6명), “절대로 참여 안할 것이다” 가 1%(3명)로 가장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꼭 참여할 것이다” 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대답한 76%의 학생들이 다음 학기에도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수업을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7) 음악수업을 위해 학교나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써 주세요.

<표 22> 음악수업을 위해 하고싶은 말

응답내용
- 밴드부 만들어주세요 - 인원이 너무 많아요 - 작곡을 배우고 싶다. - 첼로 배우고 싶어요. - 피아노부 만들어 주세요. - 가야금 배우고 싶은데 수업에 없어요 - 방과후 음악 프로그램의 다양화. - 드럼 배우고 싶어요

“음악수업을 위해 하고싶은 말”의 질문에는 현재 방과후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수업의 다양화 등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2) 요약정리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학생 기초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비는 남학생이 25%(57명), 여학생이 75%(174명)로 여학생이 남학생의 두 배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으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업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수업을 1년 이상 받은 학생이 36%, 84명의 수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악기는 꾸준히 배워나가야 하는 것임을 인지하여 한번 시작하면 1년 이상 꾸준히 교육받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 대부분이 수업의 흥미를 갖고 있으며 48%, 110명 정도의 학생이 수업에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졸업한 후 중·고등학교때 음악을 배울것인가의 질문에 “배울 것이다” 라는 의견이 41%, 96명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배우고 있는 수업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관심이 있어 배워보고 싶어서”가 68%, 전체의 15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과후 음악 수업이 끝난 후의 악기 연습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끔” 연습 한다는 결과가 60%, 138명으로 수업의 흥미도에 비해 평소 연습량은 저조함을 나타내었다. 연주회 또는 발표회가 열리는가를 묻는 질문에 “한학기에 1번”이 55%, 126명으로 연주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은 한반의 수업인원 “5명이상 ~ 10명 미만” 주당 2회수업을 가장 선호 하였고 단체연주로 다 같이 수업에 참여하여 연주할 수 있는 합주의 수업방식이 가장 흥미롭다고 답하였다.

넷째,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수업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수업방식을 만족하는가 에서는 “매우 만족한다”가 41%, 94명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학생들에게 수업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도 계속 하고 싶은가의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30%, 70명이고 수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질문에 “높아졌다”가 48%, 111명으로 대답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수업을 통한 자신의 악기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질문에 “높아졌다”가 44%, 102명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에게 다음 학기 방과후 음악수업에 참여할 것인가의 질문에 “꼭 참여할 것이다”가 40%, 93명으로 계속 음악수업을 해나갈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 음악특기 적성 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서울시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10개교의 지도교사 20명과 수강생 231명을 대상으로 교사는 인터뷰를 학생은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음악특기 적성 교육활동에 대해서 교사나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만족 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특기적성을 신청한 학년이 1학년에서부터 6학년으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많은 비율의 응답이 이루어져 있다. 각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개별적 수업이 아니라 한반에 10~20명의 학생들이 다같이 함께하는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음악 특기적성 교육이 사교육보다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와 비판이 있었지만 설문을 조사한 결과 수업의 흥미도에서 “매우 흥미 있다”가 48%로 제일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졸업후 중·고등학교때 음악을 배울것인가”에서 배운다고 응답한 비율이 4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고 있는 수업을 선택한 이유”에서 관심이 있어 배워보고 싶다가 6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음악 특기 적성 수업을 받고 나서 “음악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45%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음악 특기적성 수업이 사교육비 경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수강료가 낮게 책정하게 되므로 지도강사들에 대한 낮은 보수로 질적으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수업인원은 몇 명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명이상

~15명미만” 이 34%로 가장 높은 결과로 과목당 지도교사의 원활한 수업이 되지않아 수업인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개개인의 질적인 레슨이 아니라 그룹레슨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학생들의 실력향상도 늘어나지 않고 만족도도 떨어지게 된다.

넷째, 음악 특기적성 수업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초등학교가 대부분이어서 학생들의 특기 신장 교육 및 소질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다섯째, 초등학교별 음악 특기적성 수업을 조사한 결과 29개의 학교중 국악수업이 있는 학교는 가야금 4개교, 소금 1개교, 단소3개교, 사물놀이 3개교이고, 바이올린은 28개교, 플룻 25개교 등으로 악기에 비하면 국악 악기 수업은 많지 않았다. 교과서에서 국악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음악 교육은 국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된 결론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방과후학교 음악 특기적성 수업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도강사의 전문 교육연수 등을 통해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1~2학년은 다양한 경험을 유도할 수 있는 음악교육으로, 3~6학년은 음악적 체험을 영역별로 표현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다양하고 흥미 있는 놀이 활동 및 다양한 음악적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음악교육의 전문가로 수업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고 요구되어진다.

둘째, 외국의 사례에서는 학생들의 취향과 소질 계발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은 음악회나 발표회가 자주 열리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도 개선하여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국가 정부의 지원, 학부모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다양한 음악 특기적성 수업을 위해 학교측의 홍보와 지역 환경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방과후학교 음악 특기적성 수업의 음악 전용교실 확보와 열악한 시설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우수한 음악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지식과 책임감을 강화해야 하며 계약 채용시 음악교육에 대한 일반 연수를 받게 하여 음악 특기적성 교육 강사들이 음악가가 아닌 음악교육 전문가임을 강조하면서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 내 발표회나 대회를 마련하여 학생들과 학부모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학교에서는 만들어 주어야 하며 학기별로 작은 음악회를 열어 음악 특기적성 프로그램 시간에 배운 실력을 보여 주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악수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의 지원확대로 국악 지도 교사의 전문적인 기능 습득을 위한 실기 연수가 강화되어야 하고 국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강좌들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국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음악의 소중함을 느낄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음악은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수업의 활성화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노력과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강사들의 연수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음악재단을 설립해서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도 늘리고 강사의 지원과 악기의 지원을 해야한다. 현재 체육(스포츠)이

나 과학에 비해 음악 인재양성의 제도도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 학교에 와서 음악을 접할수 있도록 초등학교 방과후 음악 특기적성 수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 연구가 서울시 방과후 학교 음악 특기적성 수업에 도움이 되어서 인재양성과 음악교육이 발전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권덕원. (2009). 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서울
- 김종서 외. (1984). 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서울
- 문교부. (1996). 특기적성교육 교사용지도서
- 석문주 외.(2011).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서울
- 이성삼. (1983). 음악교수법. 세광출판사, 서울
- 이홍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출판사, 서울
- 이홍수. (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출판사, 서울
- 유덕희. (1975). 음악 교육학 개론. 학문사, 서울
- 임미경 외.(2002).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예종, 서울
- 최시원. (1996). 음악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다라,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1997). 방과후 아동지도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학사, 서울
-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1998).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학림기획, 서울
- 함종규. (1984). 특별활동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서울
- H. 에이블리스 방금주 역. (1990). 음악교육의 기초. 삼호출판사, 서울

<국내논문>

- 김영희. (2010). 초등학교 방과 후 음악 부 특기적성 교육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석사 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산업, 창업경영대학원
- 김태웅. (2007). 대구 지역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의 음악활동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석사 학위 논문, 대구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성태. (2007). 방과 후 학교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석사 학위 논문, 대구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인영. (2007). 중학교 음악과 특기적성 교육 활동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석사 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연경. (2009). 초등학교 특기적성 음악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 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명준. (2007). 초등학교 음악 특기적성 교육의 실태조사연구,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은경. (2009). 음악과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음악교사의 태도 및 실태분석. 석사 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음악교육대학원
- 박은숙. (2008). 방과 후 학교의 음악교육활동 실태분석 연구 : 춘천시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미경. (2007). 특수학급 방과후강사의 직무만족도와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장성문. (2008). 초. 중학생의 일상생활에 관한 시, 공간적 비교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정옥희. (2009).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최윤선. (2009). 초등학교 음악 특기적성 교육의 실태와 연구, 서울 시립

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한은실. (2003). 특기, 적성 음악교육 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 중앙
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학술지>

김용희. (2005). 미국 음악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체제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 29집

교육인적 자원부. (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V). 교육부,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0).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개선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2007). 초등 방과후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교육청. (2007). 초등 방과 후 강사연수

이성주. (1998). 방과 후 음악 교육활동의 문제점 분석 및 제안점. 예체
능 교육연구 vol. 3,

유방관, 최상근. (2004).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방과 후 학교 내 보육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장혜원. (2007). 방과후 음악 활동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방과후 아동
지도 연구

전음교. (2005). 독일과 프랑스 음악교육 현장을 가다.

정기섭. (2007). 독일의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운영 현황.

한국비교교육학회, 서울

EBS 교육방송. (2005). 세계의 예술교육 그 현장을 가다 -호주편

ABSTRACT

A Survey on the Satisfaction for After-School music program of Elementary school in seoul

Lee Sung Hye

Music Education Major,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ctual state of research problems at solution on the After-school music program of elementary school in seoul. The research subjects are Yangcheon-gu, Seoul tutor of 10 schools in 20 school name and student teachers to target 231 people to interview the student questionnaire was performed.

First, the music specialty aptitude to apply for one grade from grade 1 to grade 6 in the upper grades the response rate goes up, more and more is mad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stage of each child individually in classes 10-20 students per class, but this is being done in class together together.

Second, the music specialty aptitude training classes than private concern and criticism of the poor quality of the survey

questionnaire, but also in the interests of the class "is very interesting," the highest percentage 48% showed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in will learn the music from "baeundago response rate of 41% to one, respectively. Also, "Why did you choose to learn lessons that" I want to learn're interested in the 68% was higher after receiving music lessons specialty aptitude "interest in music class" with 45%, respectively.

Third, the music comes to specialty fitness classes reduce expenditures in order to reduce private education fees positive, but at a low level, so the instructor to devise a low-maintenance instructors to ensure superior quality problems that are preventing. Also, "How many people are teaching," a survey of "more than 10 people to 15 people" less than 34% as a result of the highest per course tutors do not supply a smooth increase class size as the quality of each individual lesson as well as group lessons and classes take place without increase student's progress will fall satisfaction.

Fourth, a variety of music skills competency program of instruction is not followed by most of the students skills of elementary education and talent development kidneys do not provide opportunities that presents a problem.

Fifth, by elementary music lessons specialty aptitude survey of 29 schools with traditional music lessons school Gayageum 4 schools, the salt 1 schools, chancel three schools, three schools and percussion, violin, 28 schools, 25 schools as instruments flute

was not much compared to the traditional music instrument lessons. Traditional Music from textbooks gradually increases the proportion of the current music education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traditional music.

Seoul, the study after school music lessons specialty aptitude be helpful in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nd hopes to music education.

부 록

특기 · 적성 음악교육에 관한 설문조사(학생용)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몇 가지 질문들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을 좀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 특기 · 적성교육활동에 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각 질문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번호에 V표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이 성 혜

※ 학생 기초조사 설문문항입니다.

성 별 (남 , 여)

학년 ()

○ <수업 흥미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방과후 음악수업을 얼마나 받았는가?

- ① 3개월 ② 3개월~6개월 ③ 6개월~9개월
④ 9개월~12개월 ⑤ 기타()

2. 음악 특기적성 수업의 흥미는?

- ① 매우 흥미있다 ② 조금 흥미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흥미없다 ⑤ 흥미없다

3. 학교선생님과 강사선생님중 어느쪽을 원하는가?

- ① 학교선생님 ② 외래강사

4. 배우고 있는 악기에 대한 생각은?

- ①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 ② 취미로 배우고 싶다 ③ 관심은 있지만 별 생각
없다 ④ 보통이다 ⑤ 관심없다

5. 졸업후 중.고등학교때 음악을 배울것인가?

- ① 배울 것이다 ② 배우지 않는다 ③ 생각해 보겠다 ④ 모르겠다 ⑤기타()

6. 배우고 있는 수업을 선택한 이유?

- ① 관심이 있어 배워보고 싶어서 ② 부모님의 권유로 ③ 친구가 배워서
④ 선생님의 권유로 ⑤ 기타()

7. 악기 연습량은?

- ① 매일 ② 가끔 ③ 거의 하지 않는다 ④ 관심없다 ⑤ 기타()

8. 연주회 또는 발표회가 열리는가?

- ① 한 학기에 1번 ② 한 학기에 2번이상 ③ 1년에 1번 ④ 1년에 2번 이상
⑤ 열리지 않는다

○ <수업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9. 수업인원은 몇명 인가?

- ① 5명이내 ② 5명이상~10명미만 ③ 10명이상~15명미만
④ 15명이상~20명미만 ⑤ 20명이상

9-1. 수업인원은 몇 명이 적당한가?

- ① 5명이내 ② 5명이상~10명미만 ③ 10명이상~15명미만
④ 15명이상~20명미만 ⑤ 20명이상

10. 일주일에 몇 번 수업을 하는가?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10-1. 몇 번 받았으면 좋겠는가?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11. 반이 어떻게 나누어 지고 있는가?

- ① 수준별 ② 학년별 ③ 신청순서대로 ④ 모르겠다 ⑤ 기타()

○ <수업 방식>에 관한 설문 문항입니다.

12. 어떤 수업형태가 가장 재미있는가?

- ① 개별지도 ② 그룹레슨 ③ 단체연주(합주) ④ 짝활동 ⑤ 기타()

13.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수업방식을 만족하는가?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조금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